

동화리·東花里

동화리·東花里

<구연자 : 아산군 송악면 동화리 1구 장인석 氏 (74세)>

동화리는 송악면의 한마을로 작게는 두마을로 나뉜다. 1리는 덕대울, 2리는 서봉골이라 한다. 동화리의 인구는 259명으로 가구수로는 105세대이며,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동화리는 본래 온양군 남상면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서리, 중서리, 약봉리, 장재리, 백하리, 동화리를 병합하여 동화리라 하여 아산군 송악면에 편입되었다. 동화리는 온양에서 39번 국도를 따라 송악면 소재지인 역말을 지나 삼거리에서 예산방면 도로로 3km정도 올라오면 송악저수지가 있고, 도로쪽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전형적인 시골마을로 형태로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산속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 많아 특수 작물로 담배재배, 고추재배 등의 밭농사를 주로 하고 있다. 동화초등학교가 있었는데 학생수가 감소하여 폐교가 되어 현재는 이곳에 있는 학생들이 송남초등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다.

<동화리위치도>



☒ 덕대울, 서봉골, 분룻골 마을 (동화리)

동화1리 덕대울 마을은 송악저수지 옆으로 난 도로를 따라 예산 방면으로 가다보면 청소년 야영장이라 되어 있는 건물을 볼 수 있으며, 그곳은 본래 동화초등학교로 근방에 있는 어린이들이 다니던 학교였는데 학생수가 줄어들게 되자 폐교를 하고 면소재지에 있는 송남초등학교로 통합을 시켜 그곳으로 통학을 하고 있다. 덕대울이라는 마을 이름의 유래는 마을앞 초등학교가 생기기 전에 운동장이 있는 자리에 큰 참나무 20여 그루정도 있었고 가시덤불이 무성하였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곳에 가져다 놓곤 하여 덕대울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마을 앞으로는 냇가가 있고, 마을이 외진곳에 있는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마을 안쪽으로는 안터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은 강씨들의 집성촌으로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덕대울로 넘어와 터를 잡으면서 덕대울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동화 2리 마을인 서봉골은 동화리 북동쪽에 위치하여 있는 마을로 옛지명은 상서리로 되어 있으며, 배골마을은 백학동이라 불리웠는데 이 곳에 백학이 모여 놀았다하며 이 곳에

송장을 아무곳에 버려도 별탈이 안 생길 정도였다고 한다. 송악 저수지 끝부분에 위치한 분뚝골 마을은 예전 이곳에 분토가 많이 났다하여 불리게 된 이름이며, 이곳에 "비봉귀소형(飛鳳歸巢形)"의 명당이 있다고 한다.

< 조사당시 동화리 마을 관련 사진 >



1) 위치

덕대울 마을은 위도 36-43-30, 경도 126-58-20인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면소재지에서 동서쪽으로 3km 약간 넘는 지점에 위치한 마을이며 101번 도로의 시발점이다. 예전의 동화초등학교 맞은편에 있고, 마을 앞으로 난 도로를 따라 내려가면 예산이 나온다.

서봉골 마을은 위도 36-43-20, 경도 126-59-10인 지역에 위치해 있고, 송악저수지 주변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면소재지에서 가다보면 송악저수지 끝으로 언덕이 나오며, 언덕 우측편으로 통나무로 잘 지어진 레스토랑이 있는 마을이 분뚝골이고, 그 고개를 넘어 서면서 위치한 마을이 서봉골, 그리고 서봉골에서 더 내려가 다리를 건너면서 좌측으로 산 깊숙한 곳에 위치하는 마을이 배골로 서봉골 마을에 모두 속한 마을이다.

2) 현황

덕대울 마을의 인구는 총 104명이며 남자 42명, 여자 62명이다. 총 57가구로 그중88%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공무원과 회사원이다.

서봉골 마을과 배골, 분뚝골마을의 총인구는 155명으로 남자 77명, 여자 78명이며, 총가구는 48가구로 그중 9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10%는 비농가이다.

- 인구 현황

| 구분 마을명 | 계 | 남 | 여 |
|-----------|------|----|----|
| 덕대울마을 | 104명 | 42 | 62 |

| | | | |
|-------|------|----|----|
| 서봉골마을 | 155명 | 77 | 78 |
|-------|------|----|----|

- 생업

| 구분 마을명 | 계 | 농업 | 비농가 |
|-----------|------|-----|-----|
| 덕대울마을 | 100% | 88% | 12% |
| 서봉골마을 | 100% | 90% | 10% |

덕대울 마을은 농경지는 논 18.4 ha, 밭 25.7ha로 논의 면적에 비해 밭의 면적이 넓은데 이는 주변이 온통 산이기 때문이다. 주로 특수작물인 담배나 고추농사를 재배하고 있다. 농기계는 경운기가 가장 많고 이앙기, 트랙터, 탈곡기, 건조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마을에는 시골마을의 문화시설로는 마을회관을 1개소가 있다.

서봉골 마을의 농경지를 보면 논 32.1ha이고 밭 15.4ha로 덕대울보다는 평지가 많아 논농사를 위주로 하고 있다. 농기계는 양수기와 경운기가 많으며, 각종 농기계들도 조금씩 보유하고 있다. 시골마을의 문화시설로는 마을회관을 1개소 가지고 있다.

- 농경지 현황

| 구분 마을명 | 계 | 논 | 밭 |
|-----------|--------|--------|--------|
| 덕대울마을 | 44.1ha | 18.4ha | 25.7ha |
| 서봉골 마을 | 47.5ha | 32.1ha | 15.4ha |

- 문화 시설

| 구분 마을명 | 계 | 마을회관 | 경로당 | 마을문고 | 기타시설 |
|-----------|-----|------|-----|------|------|
| 덕대울마을 | 1개소 | 1개소 | - | - | - |
| 서봉골 마을 | 1개소 | 1개소 | - | - | - |

덕대울 마을의 성씨를 보면 강씨가 35%로인 20호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김씨와 이씨도 약간씩 살고 있다. 연령층은 젊은층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노령층으로 60대가 많다.

서봉골 마을에 살고 있는 성씨들로는 이씨가 20%로인 10호로 가장 많고, 강씨, 김씨, 맹씨 그리고 기타성씨가 48%로인 23호이다. 연령층은 덕대울 마을과 비슷한 현상으로 젊은층보다는 고령층이 많다.

- 성씨별 분포 현황

| 구분 마을명 | 계 | 강씨 | 이씨 | 김씨 | 기타 |
|-----------|-----|-----|-----|----|-----|
| 덕대울마을 | 57호 | 20호 | 6호 | 8호 | 23호 |
| 서봉골 마을 | 48호 | 8호 | 10호 | 7호 | 23호 |

- 최고령자

덕대울의 최고령자는 유씨 할머니로 정확한 이름은 알수 없으며, 올해 90세이셨으며, 서봉

골의 최고령자는 이나경 할머니로 85세로 활동하실만큼 건강하셨다.

3) 자연 경관

덕대울 마을 앞으로는 작은 개울이 있고, 맞은편으로 옛 동화초등학교가 있다. 마을 뒷산은 도망산이라 하여 다른산과 떨어져 있으며, 또한 덕대울은 송악저수지를 감싸고 있다. 마을 개울 옆으로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는데 수령이 300여년정도된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마을 옆으로 갯고개가 있는데 그곳으로 길이 나서 그곳을 넘어가면 바로 온양 갯티가 나온다. 서봉골 마을은 북으로는 도로와 접해 있으면서 주위에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으며 도로 건너편에 저수지가 있다. 분뚝골에 있는 집들은 대부분 현대식으로 깔끔하게 지어져 있고, 그 옆으로 이번에 통나무로 웅장하게 지은 레스토랑이 있어 자연과 잘 어울어져 있다. 서봉골 입구 저수지 옆으로는 오래된 정려가 있고, 마을 앞에는 커다랗고 오래된 은행나무가 자라고 있다. 배골은 산속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다.

4) 마을 변천과정

덕대울과 서봉골마을은 본래 온양군 남상면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서리, 중서리, 약봉리, 장재리, 백화리, 동화리를 병합하여 동화리라 하여 아산군 송악면에 편입되었으며, 서봉골은 옛날에 분토동, 서봉동, 백학동으로 분리 되었다고 한다. 서봉골은 송악저수지 주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옛날에는 분토동, 서봉동, 백학동으로 분리되었다가 병합하여 송악면 동화 2리에 편입되게 되었다.

5) 입 향

덕대울에 터를 잡게 된 곳은 바로 안터이고 그후로 분가를 해서 마을이 새롭게 생기게 된 것이다. 이조무렵에는 이곳에서 그릇을 굽기도 하였으며 안터에는 강씨들이 9대째 살고 있고 마을의 원거인도 강씨라 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을의 형성년대는 서기 1730년경 약 270년전으로 보아진다.

서봉골마을 역시 처음 터를 잡은 성씨는 강씨로 7대째 살고 있다. 그리고 강씨 성 중에도 3파로 나뉘는데 봉암파, 삼양공파, 복천파로 나뉘며 현재 거의 없고 삼양공파 2가구, 봉암파 2가구만 남아 있다. 따라서 마을의 원거인은 강씨로 서기 1790년경 약 210년 이전에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추측되며, 이것으로 보아 덕대울에 있는 안터에서 시작하여 동화리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진다.

6) 지 명

十 덕대울마을 지명

·덕대울 : 상서리 서쪽에 있는 마을로 아릅드리 참나무의 덕대가 있었음.

·안터 : 덕대울 안쪽에 있는 마을.

⌊ 도망산 : 다른산과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 해서 붙은 지명임.

⌊ 서당(원천재) : 덕대울에 있는 정자. 강 태한이 종종 사람과 함께 세우고 강당으로 씀.

⌊ 산지장골 : 산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정월 초순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한동안 산제사를 안지내자 마을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많이 있게 되었고 그후 제사를 다시 올리니 마을이 평온하여졌다 함.

⌊ 갯고개 : 요즘 새롭게 난 길로 온양 갯티와 연결되는 고개.

·약봉 : 동화리 서쪽에 있는 마을로 약초가 많이 남.

·백자요지 : 안터 마을에 있음. 가마벽과 그릇 파편이 발견됨.

十 서봉골 마을 지명

·배골 : 약봉 남동쪽에 있는 마을로 "학형"의 명당이 있다 하여 백학골이라 했는데 변하여 배골이 됨.

·서봉골 : 동화2리의 주된마을로 본래 상서리라 불리던 마을. 분뚝골의 서쪽 봉우리 밑에 있는 마을.

⌊ 분뚝골 : 서봉골 가기전 언덕 우측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분토가 낮음.

⌊ 수리봉 : 온양의 더운물이 황산 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이라는 말도 있고 이곳을 파면 더운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 있음.

·장군바위 : 서봉골 뒷산에 있는 바위

7) 전 설

덕대울에는 예전의 동화초등학교 자리가 수풀이 우거져 시체를 버렸던 곳이라 하며, 배골은 본래 백학동이라 하여 학들이 서식하여 이곳에 시체를 버려도 탈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 온다.

十장군바위 (서봉골 마을)

이조 중엽 송악면 동화리라는 곳에 이 진사라는 사람이 살았다. 이 진사는 동네에서도 덕성있고 가문도 좋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이였다. 그의 부인과 며느리와 출생한지 얼마 안된 손자가 살고 있었다. 그러나 이 진사에게는 불행한 일이였다. 잠을 자다가도 아들 생각에 한숨을 내쉬는 것이였다. 그 이유인즉 원낙 그의 아들은 나이가 18세에 이르러도 대여섯살 먹은 어린애짓 만하는 철부지여서 결혼을 시켜주면 철이 들까하여 이 진사내외의 색시물은 동화리에서 시오리 떨어진 수곡 동네에 사는 김침지의 맏딸과 정혼 시키게 되였다. 그러나 그의 아들을 철이 들기는커녕 더 난폭해지기만 했다. 처음 몇 달은 그렇게 좋아 하더니만 어리석은 그는 금방 아내를 미워하게 되였다. 얼굴도 예쁘지 않고 못생긴 색시와 결혼을 시켜줬다하여 날이면 날마다 술주정이 심하고 심지어는 색시를 몽둥이로 때려서 반죽음을 시키기도 했었다. 점점 배가 불러오는 며느리가 거의 날마다 저렇게 몸을 혹사 당하다가 큰일 나겠다 생각하여 아들 몰래 며느리를 친정으로 몸을 피신시켰다. 부모의 충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날이 갈수록 난폭해지자 마침내 이 진사 내외는 장차 앞날이 걱정 돼 몸져 눕고 말았다. 색시가 사라져 버리자 그의 아들은 잠잠해져 매일매일을 낮잠으로 세월을 보내게 되였다. 그런데 저녁무렵 잠깐 꿈을 꾸게 되였다. 꿈속에서 그의 색시가 조그만 애기를 안고 울고 있었다. 갑자기 색시가 보고 싶었다. 그의 아들은 벌떡 일어나더니 집밖으로 쏜살같이 달려 나갔다. 색시를 찾으러 간다고 나간 것이다. 나가는 것을 아무도 보질 못했다. 집에서는 야단이 났다. 저녁때까지만 하여도 마루에 누워 낮잠을 자던 아들이 없어졌다고 하여 밤새 잠을 못 이루었다. 그의 아들은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길을 색시를 데리고 와야겠다는 생각에 어려운 줄도 모른채 계속 발을 내디뎠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어느 연못앞에서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이럴 수가 있을까? 지금 그가 앉아 있는 곳은 동네에서 멀리 바라다 보이는 산봉우리에 있는 바위가 있는 곳이었다. 그는 이제까지 힘들어 온 길이 여기였다는 생각에 울고 싶은 심정이였다. 그런데 그 연못에서 좀 높은 곳에 있는 바위에 흰 수염에 메움을 입고 목도를 하는 노인이 있었다. 그는 이런 광경에는 대수롭지 않은 듯 다시 내려가는데 그 노인이 흰수염을 날리며 그에게로 다가오는 것이였다. "여보게 젊은이. 어디를 갈려하나? 내가 자네를 부른 것일세. 미안하이 이런 방법으로 자네를 불러와서" 노인은 계속했다. "지금은 평화스런 저 동네가 일년후엔 큰 도적떼가 쳐들어 올 걸세" 그 노인은 자신의 도술과 무예를 물려줄 후계자로 진사 아들로 도술로써 꿈까지 꾸게 하여 오게한 것이였다. 이런말을 듣고 그는 그 노인에게 절을 하였다. 진사 아들은 한마디 대꾸도 않고 무술을 익히겠노라고 노인에게 말했다. 당장에 실천에 옮겨 그 날부터 그의 기세는 산을 울리고 함성은 메아리치기 시작했으며 하나하나 무예를 익히기에 이르렀다. 그 사이 집에서는 며느리가 친정에서 출산을 해서 시가에 시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아들이 나간뒤로 가세는 점점 기울어져 며느리의 날품팔이로 생계를 이어갈 정도로 빈곤한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한 상태, 그 이진사에게는 손자 녀석이 주는 위안은 대단한 것이였다. 이 진사의 부인은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를 드렸다. 아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그 흰수염의 노인은 저녁에 도술을 끝낸 뒤 이진사 아들에게 말했다. "내일은 자네가 지금까지 익혀온 도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할 날일세" 드디어 날은 밝았다. 흰수염의 노인은 진사 아들을 불러 "오늘 잘 싸워주게"하며 점차 몸이 사라져 갔다. 진사의 아들이 동네에 다다랐을 때 도적떼들은 동네를 벌집쭈서 놓은 듯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때는 이때다 하여 진사 아들은 도적떼들과 격투가 시작되였다. 도적떼들은 오십여명에 1명과 싸우니 상태가 안됐으나 그러나 그 동안 피땀흘린 수련덕분에 모두 물리칠 수가 있었다. 격투가 끝나고 기진맥진해 집으로 말을 몰랐다. 집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쓰러져 있었다. 어느 부인의 가슴에 한 아기가 울고 있었다. 생각해 보니 이 부인은 옛날 자기가 그렇게 학대했었던 처였고 울고 있는 아기는 자기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스쳤다. 그는 부모의 시체와 부인 시체를 뒷산에 간단히 장례를 마치고 울고 있는 아기를 안고 말에 올랐다. 그는 아기를 데리고 말을 타고 단숨에 그 바위에 올랐다. 그는 마지막으로 피비린내 나는 동네를 뒤돌아보며 아기를 안은채 눈물을 흘리며 서서 지난날을 후회하였다. 그 자리가 지금도 남아 있다.

장군 바위라 부른다. 그후 그는 산속깊이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 무예와 도술을 연마하여 일생을 고독하게 마쳤다 한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아버지가 죽은 뒤 세상에 나와 정의를 사랑하며, 백성을 보살피고 살았다 한다. 서봉골 뒷산에 늘 올라가 서있던 바위에 장군의 발자국이 남아 있다고 한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행사

덕대울 마을에서는 정월초순에 좋은날을 선택하여 생기복덕한 사람을 골라 산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한동안은 산제사를 지내지 않자 마을에 안좋은 일이 생겨 마을 사람들이 산제사를 안 지내서 그렇다고 하여 다시 지내게 되니 마을이 다시 예전처럼 평안해지게 되었다고 한다. 마을에는 산지장골이라 하는 산제사를 지내는 장소가 있다. 그리고 산지장골에 서는 땅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물로 제물을 씻어 제사를 지내고 있다. 서봉골 마을에서는 예전에 성황제를 지냈는데 도로를 내면서 성황당이 없어지고 자연적으로 성황제도 없어지게 되었다. 두레때마다 마을 앞에 있는 둥그나무에 술과 풍장을 치며 제를 올렸는데 언젠가 한동안 제를 지내지 않자 마을에 안좋은 일이 생기게 되어 다시 이월 초하루에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현재도 둥그나무 밑에서 제를 지내고 있는데 위치는 마을 입구 정려가 세워진 곳이다. 그리고, 배골마을에서는 산신제를 정월 초하루에 지내고 있는데 그곳에는 아직도 오색천을 나무에 묶어놓은 모습을 볼 수 있다.

9) 특별히 소개할만한 인물

十 강태건 (姜泰建)

아산군 송악면 동화리 출신으로 홍주의병의 항전(抗戰)에 참가하여 용전(勇戰)하였다. <武裝獨立運動秘史>

十 맹도(孟都)

자는 토후, 본관은 신창, 명신 사성의 후예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판관(訓練判官)이 되었다. 인조 갑자년 이괄의 난에 안재에서 대첩하여 진무이등공신(振武二等功臣)에 책록되었고 병자호란에 남한산성으로 호가(扈駕)하였다. 왕이 그의 모습이 동상으로 주름이 잡히고 수족이 못이 박힌 것을 보고 그 충성을 가상히 여겨 선전관을 특제(特除)하였고 두 차례나 강화도에 다녀왔다. 묘는 아산군 송악면 동화리 백암동에 있다. <朝鮮象輿勝覽>

10) 종교단체

동화1, 2리 마을에는 종교단체는 없지만, 배골 안쪽으로 들어가면 무속인이 사는 듯한 집이 있는데 집 앞에는 오색천으로 나무에 둘러놓았고, 나무밑에는 자그마한 제단이 만들어져 있다.

11) 공장현황

덕대울 마을과 서봉골 마을의 근방에는 송악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의 물은 온양지역의 식수로 이용되고 있어 저수지 주변으로 공장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12) 마을의 특성

덕대울 마을은 송악저수지와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공장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발전이 매우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며, 가옥들도 전형적인 시골 가옥으로 산속에 위치해 있으며, 논농사보다 밭농사를 많이 짓고 있고, 원천제(原泉齊)가 있는데 광무년간(光武年間)에 강태한(姜泰漢)이 종인을 위하여 창건(創建)하고 문중자질(門中子姪)이 학습(學習)하는 곳으로 삼았다. 사인 정양숙(鄭兩肅)은 원천제라 편명(扁名)하고 문장 강좌선(姜佐善)을 서기(書記)하였다. 목조와즙(木造瓦葺) 평가로 껍 견고(堅固)하여 오래도록 보존하기에 알맞다.

서봉골 마을은 교통편이 많지 않아 약간의 어려움이 따르며, 서봉골 마을 앞에는 정려가 있는데 봉암과 강씨의 효자문이라고 한다